

미국장로교 (PCUSA) 소속 교회에게 드리는 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다서 1:2).

안수 기준에 관한 찬반 토의는 지난 30 년동안 미국장로교회 교인들이 힘들게 다루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 집사, 장로,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함께 목회의 은사들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들은 모든 교회, 교인,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들의 뜻이 존중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올해, 대화의 초점은 제 219 차 총회 (2010 년)를 통과하고 인준을 위하여 각 노회로 보내진 10-A 라는 안수 기준에 관한 개정안에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5 월 둘째 주 현재, 개정안 인준을 위하여 요구되는 과반수인 87 개의 노회가 10-A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공식화되면, 안수를 위한 은사와 요구들을 규정하는 새로운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수 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맡기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G-1.0000). 안수와/또는 위임을 책임지는 치리회 (G.14.0240; G-14.0450)는 각 후보생의 소명, 은사, 준비절차, 그리고 직분의 책임들에 대한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후보생이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상의 질문들 (W-4.4003)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케 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치리회가 각 후보생에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결정은 안수직의 직분자들인 집사나, 장로나, 목사는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복종한다”는 것에 계속하여 뿌리를 둔다는 확실한 긍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은 교회의 공동체 삶을 함께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을 따라, 각 당회와 노회는 안수 받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 동성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장로교 내에서 집사나, 장로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안수와 위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수를 위한 교회 전반에 걸친 다른 기준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반응들은 많은 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것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고, 이 결정이 미국장로교회로 하여금 안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회적인 은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교회로 만들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고, 현실적 문화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양쪽 편 사람들의 감정의 차이는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로교인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을 함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같이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웃이며, 동료이며, 친구이며, 가족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속되어 있는 교회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엡 4:5-6).

각 개인들을 안수 받은 직분으로 부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안수직으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유의 주로, 교회의 머리로 계속하여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붙어 살아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변화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기사와 보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으로 질문되는 사항들과, 예전을 위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많은 자료들이 <http://oga.pcusa.org>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10-A 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나 언급할 일이 있으시면, ga.amendments@pcusa.org 나 전화 (888) 728-7228, ext.820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도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복음을 위한 충실한 증인들을 갖게 하신 풍성한 유산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서 간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특별히 현재의 시간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고자 전력을 다해 온 총회의 총대들과 교단전체의 목사와 장로들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결정들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관계성들이 긴장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불러서 존재케 하시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화해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레이디 파슨스
총회서기

썬피아 볼바치
219 차 (2010) 총회장

린다 발렌타인
총회 사무총장

란돈 휘씨트
219 차 (2010) 부총회장